

우리의 대표 브랜드-삼성

1978년 삼성이 만든 최초의 휴대전화는 70여년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나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피투게더 •  새마을에 함께 한 선운

“사시사철 물질에 열두마디 안 쭈시는 데가 없지라.”

청정해안으로 유명한 금일도의 해녀들은 쉬는 날 없이 하루종일 바다 밑에서 전복과 다시마를 따낸다.

그래서 만성적인 근육통과 관절염을 앓고 살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 늘 고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어 응급환자라도 생기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물리치료실은 물론 물리방, 노인장까지 함께 마련, 보건진료소가 생기면서 이 곳 주민들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수시로 보건진료소를 찾아 물리치료도 받고, 찜질방에서 피로도 풀며,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받습니다. 30여 년간 물질을 해 온 강영임씨는 “후작스까잉, 겁나게 좋구먼”이라며 구수한 남도사투리 끝에 건강한 웃음을 쏟아 냈습니다. 구릿빛으로 검게 그을린 강영임씨의 얼굴에 언제까지나 행복의 미소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에 함께 한 선운 | 025



▲ 삼성이 세운 선운교 중점도 보건진료소, 상담실, 찜질방, 노인장, 물리방,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140여 명이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요, 희망으로!



해피투게더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큰 희망을 가지게 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해피투게더 윤은혜가 그 아름다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